일본학과 2018049807 심유빈

말할 수 없는 비밀

다른 시간대를 사는 사람과 사랑이라.

여고생 샤오위는 80년이 된 건물의 오래된 피아노에서 오래된 발견한다. 그걸 연주하면 20년 후로 시간이동을 한다. 그리고 처음 본 사람에게만 자신이 보인다.

샤오위는 그렇게 상륜을 만났다. 둘은 피아노연주로 마음이 통하며 사랑에 빠져간다. 그리고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샤오위는 시간 여행을 하면 눈을 감는다. 처음 본 사람이 상륜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녀는 108 걸음 뒤 눈을 떴는데, 그러면 상륜이 보인다. 물론 항상 성공하는 건 아니다. 왜 108 걸음 일까?

상륜은 샤오위에게 이름을 묻거나 어디로 오라며 쪽지를 보내지만 그 고백은 같은 반 여자 칭이에게 향한다. 다른 사람 눈에 샤오위가 보이지 않아서다.

그리고 음악실에서 샤오위인줄 알고 눈감고 키스를 했는데 그건 칭이였다. 그걸 본 샤오위는 상처를 받고 자신의 시간으로 돌아간다.

실의에 빠진 샤오위는 비밀을 조건으로 담임과 상담한다. 피아노로 시간여행을 한 것과 상륜과 사랑에 빠진 것 그리고 상륜이 다른 여자를 좋아한다는 것을. 담임은 샤오위의 말을 믿는 척하지만 정신분열 환자로 여긴다. 그리고 반장에게 사정을 말하고 잘 대해주라고 전한다.

그 말은 소문이 되어 모두 알게 된다. 친구들의 정신병자 취급과 조롱에 샤오위는 더 이상 학교에 나가지 않는다.

상륜은 학교 연주회 때 막 시간 여행을 온 샤오위를 본다. 청중을 뒤로하고 무대에서 내려와 샤오위를 향해 달린다. 그리고 꼭 끌어 안는다. 담임인 아버지가 달려오는 바람에 상륜은 다시 강당으로 간다. 교실에서 기다리라며 둘은 그렇게 헤어진다.

상륜은 샤오위를 찾아 샤오위 어머니가 사는 집에 간다. 그리고 비밀을 알게 된다. 샤오위의 어머니가 보여준 20년 전 그림을 보고 놀란다. 그 그림은 자기 얼굴이었다. 그리고 당시 담임은 자기 아버지였다. 비밀을 알게 된 상륜은 달려간다.

그날은 샤오위와 상륜이 만난 건물이 철거되는 날이다. 철거장에 몰래 들어간 상륜은 옛날 피아노에 앉았고 샤오위가 얼핏 가르쳐 준 악보를 연주한다. 건물은 부서지고있고 파편이 튀지만 그는 연주에 몰입한다.

철거 장비는 어느 듯 피아노 앞까지 다가왔다. 그는 건물 파편에 피를 흘렸지만 괘념치 않고 연주에 녹아든다. 그의 연주는 점점 빨라지다 피아노가 부수어지는 순간 마지막 건반을 누른다.

그는 20년 전으로 가서 샤오위를 만난다. 자신을 만나기 전의 샤오위를.

그리고 함께 졸업한다. 피아노로 이어진 사랑은 오해로 무너졌고 다시 피아노로 연결 되었다. 시간을 건너서.

음악은 정말 시간을 건널지도 모른다. 우리가 앞 선 시간을 살았던 베토벤을 좋아하듯 말이다. 속물을 넘어선 곳에는 시공을 초월해 소통하는 뭔가가 있는 게 분명하다. 말할 수 없는 비밀을 보면서 그걸 느꼈다. 혹시 베토벤이 시간을 건너 나타나면 누군가는 시간을 건너가지 않을까? 제 안의 순수를 따라.

연주란 그런 게 아닐까? 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마음을 잇는 것. 자신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자신을 잊는 것. 그래서 벽이 무너지고 관념이 무너지고 낯선 세계로 가는 것. 둘이 사랑과 관계된 연주를 할 때는 한 사람만이 관객이었다.

상륜에게는 샤오위 , 샤오위에게는 상륜

샹륜의 처음이자 마지막 시간 여행은 그런 관객조차 없었다. 단지 샤오위에게 향하는 문이었을 뿐. 그런 연주에는 어떤 생명이 있다. 그렇기에 부수어지는 건물 속에서 연주를 했고 익숙한 자기 시간대의 삶을 포기했다.

그들은 음악이란 순수 세계로 가는 마차를 타고, 시간 여행을 가서 사랑을 이루었다. 기꺼이 자기 세계를 떠났고 자신을 던졌다. 그래서 사랑답고 그래서 아름답다.

주걸륜은 아무리 봐도 일반인 외모, 하지만 인기는 연 200억 버는 청년재벌, 나도 이 영화에서 만큼은 그의 매력을 인정할 수 밖에 없었다. 로맨스 영화로서도 반전요소를 넣어 멜로영화의 진일보를 낳은 작품 [말할 수 없는 비밀]

수년 전에 봤을 때는 그저 반전에 감탄만 했었는데, 다시 보니까 또 다르게 보인다. 일단 중국어는 잘 모르지만 대만 중국어를 구사하는 것 같고, 전형적인 연기보다는 뭐라 형언할 수 없는 썸탈때 자연스러운 표정들. 일단 발성이 전형적인 연기톤이 아니라서도 크다. 럭비부 애들이랑 붙는 씬에서 보면 럭비부 애들이랑 연기톤이 판이하게 다름. 디렉션에 콘티까지 짰을 그가 주연하면서 애드립같은 실제 연기가 어떻게 나오는지 끼는 뭐 천상 연예인. 상대역인 계륜미와 열애설이 작게 났었지만 OST에 꽃아준 여가수와 대대적인 스캔들이 나서 뭍혔다고도 한다.

다시 보니까 청순하게만 보였던 샤오위는 청순가련 설정을 전부 폭격. 천식으로 약하고, 왕따당해서 가련한… 뽀뽀로 제멋대로 오해해서 눈물로 도망치는 장면은 좀 진부, 한편 칭요는 어렸을 때만 해도 두 사람 사이에 끼어서 눈엣가시 같았는데, 지금 보니 여유롭고 차분하고 상처받았지만 털고 일어나 미소지을 줄 아는 잘 자란 요조숙녀 같은 느낌. 특히 본인을 샤오위로 착각해서 키스해달라 톡톡해서 했다가 못볼걸 본 양 기겁하는데 캐릭터가 흐트러지거나 추한 모습 보였다면 뻔하디 뻔한 통속적인 캐릭터가 됐을 터. 다음날 “나에게 할말 없어?” 며칠 지나서 “힘든 일 있으면 나에게 털어놔”등 정신연령 높은 여성의 면모를 보인것은 정말 나에게 멋진여성이라는 생각이 들게끔 했다.